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7년 7월 조사 -

2017년 8월 3일
 주식회사 테이코쿠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왕성한 건설투자와 무더위가 경기를 뒷받침

~대기업은 3년 4개월 만에 50을 상회~

(조사대상 2만 3,767사, 유효회답 1만 93사, 회답율 42.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17년 7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7.6으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왕성한 건설투자와 무더위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건설업이 50을 상회하는 등 회복이 지속되었다. 향후 국내경기는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이며 건설관련 및 설비투자로 인한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 『제조』 『도매』 『운수·창고』 등 7개 업계가 개선, 『농·임·수산』 『소매』 등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무더위로 인해 냉난방기기수요가 상향되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부흥공사도 『건설』 을 중심으로 활발하여 건재관련 등에도 영향이 파급되었다. 또한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조로 『제조』 나 『도매』 와 관련된 업종의 체감경기도 상승하였다.
- 『홋카이도』 『키타칸토』 『큐슈』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시코쿠』 가 포함되었다. 태풍 및 지진피해복구·부흥공사가 피해지역의 『건설』 등 관련업계의 체감경기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 수 증가도 플러스재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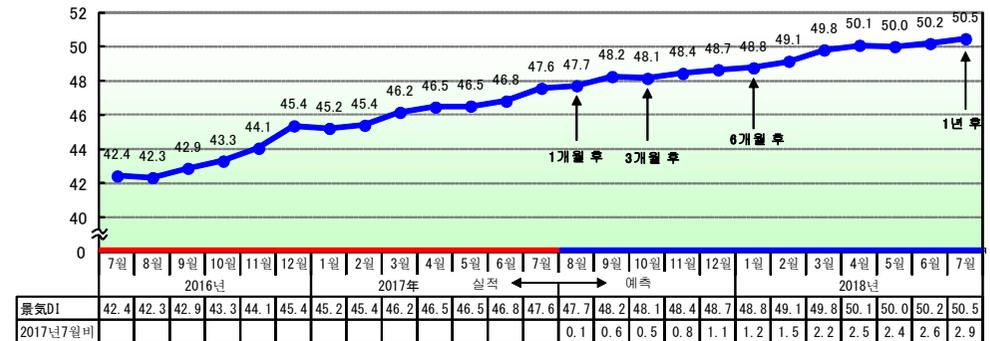


< 2017년 7월의 동향 : 회복지속 >

2017년 7월의 경기DI는 전월비 0.8포인트 증가한 47.6으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도쿄올림픽관련공사와 대규모개발, 대형물류거점과 호텔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에서 강수량이 적었던 점이 공사진척에 플러스로 작용하였다. 무더위로 인한 냉난방공사와 재해복구·부흥공사도 견조로 추이되어, 2015년 3월 이래 2년 4개월 만에 건설업이 경기판단의 기준점인 50을 상회하였다. 또한 여름계절상품과 건설관련화물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운송이 상향되었으며, 제조업에서는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인한 전자부품시장의 활황과 국내외 성력화(省力化)수요 등이 호재료였다. 대기업은 2014년 3월 이래 3년 4개월 만에 50을 넘었다. 국내경기는 왕성한 건설투자와 무더위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건설업이 50을 상회하는 등 회복이 지속되었다.

< 향후전망 : 회복세가 지속 >

향후는 개최까지 3년 남은 도쿄올림픽 및 방일외국인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그리고 기업수익의 호조와 성력화수요를 배경으로 하는 설비투자가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비는 고용정세의 개선 및 최저임금인상, 여름계절상품·서비스의 수요확대로 인하여 완만한 회복이 전망된다. 또한 세계GDP의 약 3할을 점하고 있는 자유무역권에서 탄생한 일본·유럽EPA교섭이 대략적 합의를 이룬 점은 호조인 수출동향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한 자산축소와 국내정치동향은 경기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호조인 수출지속과 더불어 건설관련 및 설비투자가 견인작용을 하여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동태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